

# PortFolio

김주리



잠겨진 공기 flooded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5

물방울에 맺히는 빛은 서로의 상호작용으로 즉각적인 파장을 만들어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된다. 물과 닿은 빛이 반사되고 굴절되어 일으키는 가시적 이미지는 일시적이고 감각적으로 공간에 투영된다. 경험되어지는 감각은 실체가 아니고 현상의 일루전이다. 물질에서 반영된 비-물질의 환영은 실제성을 분열시키고 시각적이고 인식적 차원의 반전을 유도한다. 실제와 비실체의 간극은 공간감적 기제로 다가와 그 경계를 경험하게 된다.





잠자는 물의 노래, 흙, 가변크기, 싱글채널 비디오 4분10초, 2015



작품이 설치된 장소인 이곳 지하실의 공간은 물탱크실을 전시장으로 개조한 공간이다. 또한 여전히 물탱크실의 역할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곳 센터에서 가장 높은 습도와 낮은 온도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 점에 주목한 작품은 이곳 환경의 영향 아래에 있다.

흙과 수분의 밀도 높은 결합으로 이루어진 점토로 구성된 작품은 평균보다 높은 습도의 환경으로 인해 아주 천천히 그 상태가 변화되고 있다. 이는 순간의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내어지지는 않지만 결코 멈추어 있지 않다. 느슨하게 결합된 찰흙 덩어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단단해지거나 혹은 그 결합이 탈락될 수 있다. 작품을 직접 감싸는 공기질이 작업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에 대해 실험하였다.

영상작품에는 비가 오는 날 물의 표면을 촬영한 것이다. 표면아래의 소용돌이치는 흙탕물은 물과 흙의 느슨한 결합으로 흙과 수분의 단단한 조합과 대조를 이룬다.

자연의 에너지 순환에 의해 흘러가는 물과 가두어진 채 장식적인 물, 고여지고 떨어지는 물, 그 성격은 다르지만 이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물의 풍경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환이 지속된다.

인위적으로 부여되었던 형상에서 오는 상징, 물을 주는 행위를 제거 하고 물질 그대로의 상황, 환경적 요인과 호흡을 드러내고자 한다.



Moment-15min.inkget print, 115x80cm, 2015



Moment-15min.inkget print, 115x80cm, 2015

'휘경;揮景' 주택시리즈의 다변화된 작업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집이 물에 의해 와해되는 과정을 장노출로 촬영한 작품이다. 하나의 화면 안에 축적된 시간의 흐름을 인지 할 수 있다.



landscape-scene02,clay,water,400x400x50cm,2015

이 작품은 실종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덧없음에 관한 것이다.

흙과 물은 서로를 만나게 되면서 물은 흙탕물이 되고 흙은 물경하게 침식되어 스스로의 몸을 잃어 버린다.

한국의 오래된 집들이 만들어 내는 이 폐허의 풍경은 당대의 정신과 문화, 시대적 상황이 혼합되어 투영되어 있다.





휘경;揮景-h07, 흙, 물, 70×70×36cm, 2012



휘경揮景 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주택 시리즈는 70~80년대에 대량으로 지어진 주택으로 그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도시의 곳곳에서 보급형 주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옥들에 관한 작업이다. 흙으로 축소 재현된 집들은 완벽하게 만들어진 후 물과 만나게 되면서 저점 와해되어 가는 과정으로 작업이 완성된다. 시간을 앞당겨 붕괴되는 과정을 보여 줌으로서 현 시대의 상황과 물질의 덧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scape\_collection, 흙, 물, 732×50×145cm, 2012  
프로젝트스페이스 모 개인전 설치장면



조용한 침범 개인전 전시장면, 흙, 물, 각12 × 64 × 36cm 가갤러리,2008



흙, 물, 14 × 49 × 51cm, 2008

<조용한 침범> 개인전에서는 사람의 몸과 밧줄을 모티브로 작업하였다. 젊은이와 노인의 몸, 절단된 신체, 지문 드로잉 등 이 시기의 작업들은 물적 존재 자체에 대한 고찰의 시기였다. 절단된 신체의 일부분들은 영원을 꿈꾸지만 유한한 존재의 나약함을 이야기 한다. 단단한 몸은 물에 의해 점점 와해되어 파괴된다. 흙은 이는 생명의 시작점, 사물이 구성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물질로서 의미를 갖는다.



<조용한 침범> 개인전의 일부로 위태롭게 서있는 동아줄은 인위적으로 부어지는 물에 의해 다시 침식되어 녹아내리게 된다. 그리고 물질은 다시 순환하여 자연으로 돌아간다.



조용한 침범, 흙, 물,  
acrylic, 270×6×6cm(가변크기), 2008



넷가 제방 위에 설치  
 예술과 마을 Project, 공주 원골 마을 ,흙, 금분, 2006

자연석의 형태를 똑같이 닮은 금석을 마을 곳곳의 지형지물에 맞추어 설치한 작업.  
 이 금석들은 바람과 비에 의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 자연이 된다



2주경과



Room # 203 개인전 전시광경, 2005,가 갤러리

<Room# 203>의 전시는 갤러리 공간에 오래된 여관방을 재현하였다. 누구나 기억 속 어딘가에 한번쯤은 가봤을 법한 흔한 싸구려 숙소이다. 사람들의 기억이 투영된 이곳의 오브제들을 흙으로 치환하여 제작하고 물속에 잠겨 사라지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이는 나의 기억 한 켠에 자리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시간이 흘러 기억이 퇴색되고 변형되듯 흙으로 재현된 오브제 들은 물속에 잠겨 점차 형태를 잃어간다.





우리사랑 번치 말아요, 흙, 물, 아크릴릭, 72×72×50cm, 2004  
김공주, 결혼식장가다 Project

화려하게 장식된 웨딩 케익은 영원한 사랑을 꿈꾸지만 이내 검은 속살을 드러내고 물속으로 침잠 된다.

